朝鮮日報
二日夕刊

時評
南原中學問題

×

全北南原郡에 中學設置問題가 벌어낫다 官民有志의 熱烈한 希望이라하니 아즉問題가 一般化하엿다고는볼수업다 그러나 이것이 일즉부터 同地人士의 懸案이엇섯고 一般有志의 懇切한 希望은 벌서 具體運動의 端緖를 열게까지 되엿스니 멀지아니한 將來에 그 實現을 보리라고까지 樂觀하는것은 速斷이라할터이나 우선 問題 그것이 成熟하여가는것은 分明하다 아니 그는 반듯이 同地方人士에 依하야 促成되어야할것이다

×

敎育의 民衆化를 主張한다 그러나 敎育 그것이 結局은 人類生存의 必然의 要求에서 나옴이라할진대 敎育 그것이 民衆의 더욱히 一地方民의 實際的要求에 適合함을 要한다 南原郡의 또 南原郡을 中心으로한 附近一帶의 人民들에게 實質的으로 要求되는바 敎育이 무엇인가하는것은 同地人士諸氏가 切實한 考慮를 要할 餘地가 잇다한다 中學의 設置가 必要한것은 論議할 必要가 업다 다만 一步를 더 나아가서 實生活의 切實한 要求를 더 한번 考慮할 餘地는 確實히 잇다

×

春香이 라 뎡에 맛들인 朝鮮사람으로서는 南原쯤은 가장 잘 알 것이다 南原이 湖南의 一雄州로서 嶺湖兩南의 交界에 잇서서 淳昌 任實 雲峰 長水等 全北의 各邑과 求禮 谷城 光陽 順天等 全南의 東部諸郡을 控하고 東으로 慶南의 咸陽 山淸諸郡을 隣接하야 各地交通의 孔道가 되엿고 人物集散의 都會處도 되엿스며 近日計劃되는 麗全 鐵道의 完成의 날에는 더욱히 交通의 便利와 將來의 發展을 期할 수 잇슬 것이니 南原의 中學을 둠에 必要또 妥當한 것은 吾人의 辯을 기다리지 아니할바이다 同地人士들의 努力이 크기를 바라고 關係當局의 一層의 留意를 促한다

×

中學卽高普란者는 一個獨立한 敎育機關으로서 條件을 가추지 못하엿다 그것은 차라리 專門學校로 올려가는 사다리쯤되어 잇다 一個의 高普를 마치고 學業을 못 마는 者들에게는 往往히 허울조흔『선배』님을 맨들고 마는 일이 나니 이는 朝鮮人의 生活化의 압길을 爲하야 考慮할 바이다 만흔 高普의 設立보담은 有用한 職業敎育을 베푸는 實業學校를 두는 것이 必要치는 아니할가? 智異山 千萬疊 數만흔 木材가 大部는 外來者의 利用거리가 되려하고 土地에 適合한 棉花의 產出이 全혀 또한 外來者의 原料도 이 바지 되고 마는 南原一帶의 情況을 생각하면 그에 高普程度에 匹敵할 工業學校 等을 準備하고 鄕土의 子弟들로 그 富源의 利用과 生活의 開拓을 힘쓰도록 하면 아니할가? 그리고 長遠한 學習을 志願하는 者로 光州 全州或은 京城의 學府에 就學케함이 一方策이될 줄 밋는다 同地의 人士가 이미 中學을 志望하엿스니 그 徹底한 努力이 잇슬지어다 吾人의 論한 바가 重要한 參考가 된다면 또한 조흘 것이다

廣東政府와 相對交涉은 合理的이다
現代國家의 水平線에 必至하리라고
北京外交團間에 力唱

近者北京의 列國公使는 廣東軍의 勢力進展에 非常히 注意하는 廣東政府에 對한 態度의 決定에 苦心하고 잇는 것이 事實이다 列國公使의 間에도 相當한 急進的議論이 업슴은 아니지만 廣東政府를 그래도 中國政府로 承認하는 것과 北京政府와 對立한 政府로 承認한다는 等 徹底한 意見은 아즉 좀 더 形勢가 進展되기까지 기다릴 模樣이다 그러나 中國이 長江을 사이에 두고 南北兩部로 分割되며 잇고 또 廣東軍의 勢力이 從來軍閥의 勢力과 如한 一時的 그것이 아니고 永續的基礎가 잇다는 見地下에서 對中政策變動에 空前의 苦心을 하고 잇는 것이 事實이다

北京外交團一般의 見解는 廣東軍을 純然한 共產主義의 運動으로 보지 안코 一民族의 國家建設運動으로 보는 것 갓고 國家建設의 過渡期에 잇서서는 多少過激한 色彩를 띄어 或은 上海港을 閉鎖하는 等 突飛的行動을 할는지도 알 수 업지만 早晩間 現代國家의 水平線에 가까와 질 것이라하야 純然한 感情的으로만 보지 안코 一種의 期待까지 가지고 잇는 模樣이다

最近廣東軍의 密使가 列國公使를 歷訪하고 廣東軍에 對한 諒解를 求하엿다는데 各國公使가 다 廣東政府承認의 根本問題에 抵觸됨을 避하엿다 한다 彼等의 態度로 본다면 廣東政府는 列國의 압헤 承認을 乞함과 如한 他力主義에 出치 안코 列國이 廣東政府를 承認치 아니할 수 업는 事態에 引導할려는 高踏的 態度인 것 갓다 如斯함으로도 現在北京外交團間에도 廣東政府를 承認치 안코라도 廣東政府를 相對로 하야 交涉함이 조금도 不合理를 感치 안는 現狀에 鑑하야 廣東政府는 他方交涉團體로 認하야 列國側에서 이 케 한 거름 더 積極的 態度를 取함이 適當하고 便宜한 對策이라는 意見이 有力하게 되어 간다 더라

中央政局은 奉天派의 天下
潘復臨時內閣出現?

(北京一日發) 天津會議에서 梁士詒氏로 하야금 正式內閣을 組織케 하기로 決定하고 暫時財政總長潘復으로 代理總理가 되게 하얏슴으로 潘氏는 張作霖의 招電에 依하야 三十日夜에 天津에 急行하얏는데 北京에 歸來하면 곳 潘氏의 臨時代理總理內閣이 出現할 것이며 더러서 奉天派는 公然히 中央을 占領하고 政權을 掌握함이 더라

時局의 收拾이 奉派不起면
果然是誰

(奉天一日發) 天津에서의 奉天派最高會議에 出席하고 昨日歸奉한 楊宇霆은 말하되 張將軍大總統就任說과 奉天派內閣組織說等이 傳하나 奉天派는 어데까지든지 非積極的態度를 支持하고 保境安民으로 나아갈 作定이다 그러나 時局이 紛糾하야 奉派가 아니라면 收拾困難한 때는 決코 躊躇치 안흘 것이다 今番의

楊宇霆得意談

日本當局은 南方政府와 聯絡?
佐分利局長의 視察結果

(上海一日發) 當地新聞의 電報에 依하면 易培基氏等一部國民黨有力者는 國民黨과 日本과의 聯絡을 協議하고 잇다고 報한다 其理由는 南軍이 今後發展하면 當然히 奉天軍과 對抗하지 안흘 수 업슬터인즉 日本과 奉天軍과 對抗하지 안흐면 안되겟다 若此際에 國民黨이 日本과 聯絡을 講하고 잇스면 或은 日本을 通하야 奉天을 無形中에 制抑할 수 가 잇슬는지도 未知이라는 것인데 佐分利局長의 廣東視察結果將來日本과 南方政府와의 握手케 될는지도 未知이라고 말하더라

福州占領企劃
陳儀軍이

(上海一日發) 福建에 出動한 浙江省長陳儀氏의 軍은 廣東에게 破한 바 되야 兵一萬을 引率하고 興化로부터 退却하엿는데 前衛로 하야금 福州占領을 企劃케 하엿다 福州의 形勢는 자못 混沌한 바 陳儀軍의 興敗도 只今處地로는 不明이다 福建省長薩鎭氷氏는 軍艦으로서 福州南境及外國租界를 警備中이더라

張毅軍을 遂擊退

(福州一日發) 張毅軍은 三十日朝烏龍江에서 海軍에게 擊退되야 死傷이 千名에 達하얏더라

吳氏는 副司令辭退

(北京一日發) 安國軍副司令에 各省督辦은 就任하얏고 吳佩孚는 二十八日付로 辭退電報를 發하엿더라

事實上軍閥의 盟主
(天津一日發) 張作霖을 安國軍總司令에 推戴하기를 贊成하야 署名한 者는 奉天派七名 孫派五名 山西軍二名 陝西軍一名이오 吳佩孚派는 겨우 高維岳 一名뿐인바 그리하야 張作霖은 事實上軍閥의 大同團結의 盟主가 되여 奉派의 勢力이 增大하게 되엿더라

安國軍總司令에 張作霖은 遂就任
討赤標榜을 回避한 것
吳佩孚는 討赤總司令?

(天津一日發) 張作霖은 安國總司令에 就任되고 副司令에는 孫傳芳、張宗昌、閻錫山의 三名說과 北方各省督辦을 網羅한다는 說이 잇고 또 吳佩孚를 討赤總司令에 推擧한다는 說도 잇는데 張이 安國의 名義를 選할 것은 한갓 討赤의 標榜을 避하고 積極的으로 國家建設의 重要한 意味를 가진 것으로 用意가 深長하다 더라

就任式擧行
(天津一日發) 張作霖의 安國軍總司令就任式은 一日午後三時에 曹家花園에서 文武百官이 參列한 가운데에서 盛大하게 擧行되엿더라

列國方針 不一致

(天津一日發) 本日의 外交團會議는 開會後約三十分에 散會하얏는데 廣東政府의 抗議를 否認하는 問題에 對한 列國의 步調가 區區하야 어데까지 意見의 一致가 困難함으로 新局面에 對한 列國方針이 決定되지 못하겟더라

人事하엿슴뿐이고 何等余와 時局에 關하여는 談치 안엇다云云 또 吳佩孚와 孫傳芳이 失脚하야 奉天派의 蹶起를 不待한다고 時局의 收拾이 困難하다는 意味를 言外에 비치고 得意의 態度가 分明히 보이엇다 더라

獨佛諒解는 歐洲의 永久平和
協調는 聯盟의 精神
佛下院에서 브外相演說

(나우엔三十日發) 佛國下院에서 外交問題를 討議中 外相『브리안』氏는 左와 如히 述하엿더라 『獨、佛兩國間에 諒解가 成立되지 안흐면 歐洲에는 永久平和가 올 수 업다 現在의 協調政策은 聯盟의 精神을 實現하는 것으로서 其精神이 야말로 이미 顯著한 成功은 收하엿다 其次中國에 在한 形勢를 보면 佛國은 恒常穩健한 處地에 잇스나 萬若行動의 必要가 잇스면 반듯이 盟約國과 協調할 것 뿐이다

獨佛關係는 戰時에 復歸
獨前首相論文

(나우엔三十日發) 獨逸中央黨의 有力한 幹部이오 또한 最近雜誌『獨逸共和國』을 發行하고 잇는 前獨逸首相『요제푸 위르트』氏는 『벨넬·타게불랏트』紙上 最近獨佛關係를 論하야 『今後는 佛蘭西側에서 積極的으로 하지 안흐면 안되겟다』 最近佛蘭西의 獨逸에 對한 論難은 자못 戰時에 在한『宣傳』에 復歸한 觀이 잇다고 批難을 하엿다 『알트』氏가 일즉이 首相時代에 當時의 外相『알텐·라테나우』氏와 共히 平和遵守政策에 熱心이 잇는 支持者이던 것과 右論文에 낫타난 遠慮가 만흔 論調와는 同論文의 價値를 重하게 하더라

國王問題는 揭載禁止
秦國內相嚴命

(나우엔三十日發) 斐馬尼內務大臣은 命令을 發하야 『부카레스트』에 在한 諸新聞紙의 社長及編輯人에 對하야 國王의 容態又는 王位繼承의 問題에 關한 報道揭載를 嚴禁하엿더라

英炭坑夫復業 順調로 進行

(倫敦三十日發) 炭坑罷業의 其後形勢는 極히 順調로 進展되야 炭坑區中最히 强硬한 地方이라고 보던『사우스웰스』地方의 炭坑區에서도 三十日協定이 成立되야 勞働時間은 一週間四十七時間이요 賃金은 罷業開始前과 大略同樣으로 明年五月三十一日까지 期限한다는 條件이다 其結果 『사우스웰스』 地方의 罷業坑夫는 畢竟一日부터 一齊히 就業하기로 되엿더라

波蘭上院選擧
共和黨勝利

(波蘭三十日發) 當地에서 行한 上院議員選擧의 結果는 共和黨의 『아사굴도』의 勝利가 된 外닭에 只今까지 民主黨과 互相百十七名으로 伯仲이던 共和黨은 다시 一人을 加하게 되엿다 如斯하야 共和黨은 依然히 上院의 支配權을 確實히 持續할 수 가 잇게 되엿더라

第二次減稅額 五百二十萬圓

(東京電) 大藏省議決定案에 依하면 第二次稅制整理에 依한 減稅額은 登錄稅百萬圓、印紙稅百二十萬圓、砂糖消費稅三百萬圓 計五百二十萬圓이더라

各省法案審議
來議會提出件

(東京電) 政府는 次期議會에 各省으로부터 提出할 法案이 多數에 達할 것을 豫測하고 全部十一月末까지 各省으로부터 內閣에 提出식혀 미리 法制局에서 審議를 하기로 協議하엿던 바 其期日까지 協議를 經하야 提出된 것은 宗敎法案 (文部) 保險等法中改正法等 (遞信)二件뿐이오 小作法、鐵消數設、諸施設求의 意味에서 提出되고 또 改正法律는 未定案이 나다시 한 各省으로부터 提出하리라고 豫想되는 것은 恩給法案、關東州特計關稅에 關한 法案、土地收用法改正案、出版法案、郡制案、第二

老大中國의 國民的思想 全國에 彌漫
排外運動을 忽視는 不可
佛國브外相演說

(巴里三十日發) 佛蘭西外相『브리안』은 三十日下院에서 佛中關係를 論하여 日 國民主義的思想은 現在此老大國인 中國全國에 彌漫하는 바 其一面에서 此傾向을 利用하야 容易치 안은 排外運動을 擴展케하려고 策動하고 잇는 것을 이저서는 안된다 고斷言後佛蘭西는 華府會議의 對中協約을 忠實히 遵守하고 잇다고 附言하엿더라

英吉利의 對中地位孤立
排外感情은 漢口뿐아니다
英國첸버렌外相演說

(倫敦一日發) 英外相『쳄버렌』氏는 一日下院에서 中國의 形勢에 對하야 演說하며 日英政府는 中國의 內政에 干與하기를 슬허하지 안는다는 旨를 發表하고 個人의 廳擾에 關하야 政府의 第一義務는 中國에 在한 英吉利臣民의 生命財產을 保護함에 在하다고 斷定하엿다 다시 議員의 質問에 答하야 英吉利 佛蘭西及日本은 各自의 居留地保護에 關하야 協同的行動을 取할 것은 疑問이 아니다 中國에 在한 目下의 英國地位는 孤立의 感이 잇스나 何等憂慮할 必要는 업다 排外感情이 旺盛한 것은 目下의 處地로는 漢口뿐만 아니나 同地方在留英人保護를 爲하야 다시 砲艦二隻의 增派要求가 잇슬는지도 未知이라고 云云하더라

電鐵借款契約
大倉組와 交涉

(北京一日發) 中國側의 消息에 依하면 中國政府는 大倉組와의 電鐵電廠一千二百萬元借款契約締結에 對하야 期限二十個年利息八分을 條件으로서 近近財政部交通部로 하야금 接衡을 식히기로 決하엿더라

次期議會에 伴한 各種法案、兵役法案、辯護士法案、鐵道輸送法案 等十數件이 더라

金功章授與

(奉天發) 張作霖은 張宗昌、褚玉璞、張作相、吳俊陞、張學良、韓麟春、楊宇霆等三十二名에 對하야 奉天軍의 金功章인『유지』勳章을 授與

松花江埠沒收
財產目錄騰寫

(哈爾賓一日發) 松花江岸의 中東鐵道貨物積込埠頭는 數者에 沒收된 東鐵船舶部의 一部分이라는 理由로 東北工務局은 昨日右埠頭及附近의 東鐵倉庫를 沒收할려고 埠頭事務所의 財產目錄을 騰寫하고 同所를 封鎖하엿다 現在同所倉庫에 保管中인 貨物豫想金額은 數百萬圓에 至하야 그대로 繼續한다면 東鐵의 貨物輸送에 對하야 支障을 來할 것은 勿論이요 一般省民의 밧을 影響도 多大하리라 더라

海員賃金引上 圓滿解決

(漢口三十日發) 海員公會의 賃金引上問題에 關한 日本側各會社와의 交涉은 二十九日圓滿히 解決되엿슴으로 三十日調印할터이더라

國民黨政治部 廈門에 設置

政局의 推移如何
政本提携의 分岐點

(東京電) 後藤、床次兩氏의 會見에서 作製된 政本提携의 覺書가 政友會側의 完全한 諒解를 得치 못한 所以는 床次氏가 兩派提携를 三問題에 限하야 特히 此를 議會에서 行한다고 狹義로 解釋함을 아직 提携의 誠意를 充分히 看取할 수 업다고 함에 잇다 政友會는 本黨의 眞意는 兩派提携라는 表面的事實 만으로 政府及與黨을 脅威하고 議會前에 退却식힐려함에 잇고

內閣總辭職後는 此提携에 拘束되지 안코 自由로 行動을 取할 터 함이다 그러고 此의 誠意가 奏功치 안코 이대로 議會에 臨한다면 三問題만 協調되고 他는 兩派가 다 自由하다 함인즉 如斯한 微溫的提携는 돌이혀 不必要하다 하야 床次總裁의 意見에 多大한 疑惑을 가짐에 對하야 本黨中에는 政友會와의 提携는 武心을 要한 나 昨年議會時에 兩派幹部間에 서도 不可侵할 것과 兩派의 一方

鐵筆寫眞
—(投稿歡迎)—
어느분네가 먼저 알아봄일?

漢口罷業의 飛火 歐米商人側에 遂蔓延
陸戰隊急行、各國軍艦集中

(上海一日發) 漢口來電에 依하면 同地의 罷業은 此數日來對日本人關係의 것은 漸次下火됨에 反하야 歐米商人關係方面에 蔓延되야 英國租界와 如한 곳은 이미 陸戰隊의 警護를 밧고 在留外人은 目下食糧品의 缺乏을 豫想하고 極力補給의 途를 講究中이다 『켓펠』號는 三十五名의 陸戰隊를 태운 後上海로부터 漢口에 向하엿는데 目下遡航中의 米艦二隻과 合하야 漢口에 集中한 各國軍艦은 合計十四隻이 더라

英佛陸戰隊 部署整頓

(北京一日發) 漢口로부터 온 報道에 依하면 佛租界에서는 勞働者와 佛國軍隊와의 間에 衝突이 이러낫다 英國租界에 在한 英國陸戰隊도 이미 各各部署에 就하고 武裝한 中國兵은 勿論一般中國人도 許可가 업는 者는 通過를 嚴禁한다 또

骨粉工場襲擊 店員拉去

(漢口一日發) 昨三十日時 漢口港外 ⋯ 公司(日本 ⋯ 亂入하야 ⋯ 員 谷口 某 ⋯

한 漢口 並長 ⋯ 民은 自衛上 ⋯ 計劃中이 더라

金山檢事正 秘密히 東京에

(大阪電) 大阪地方裁判所金山檢事正은 松島事件에 關한 司法省의 召電을 밧고 一日午後十時發 秘密히 上京하엿다 事件의 豫審取調는 이미 終了되고 角南豫審判事는 官舍에 調書를 가지고 가서 整理中인데 近近主任檢事의 豫審終決의 意見을 求하야 兩審判與否를 決할 터이다 그러한 此時에 最後로 檢事正의 上京은 非常히 重大視되는데 此理由는 箕浦氏의 若槻首相에 對한 告訴狀等이 公開되야 政治問題化하엿슴으로 首相은 除訴計劃이라는 意見을 公然히 述하는 態度인 바 右告訴狀에 關한 新聞記事出所에 對하야 東西檢事局은 相應하야 猛烈한 取調를 하엿슴으로 右調書를 携帶하고 上京하야 東京의 調査와 對照하고 다시 徹底的搜査를 開始하려고 協議하려는 것이라고 觀測되더라

田中氏覺書 後藤氏에 手渡

(東京電) 三十日의 後藤、田中兩氏會見時에 田中總裁는 大要左와 如한 覺書를 持參하고 그 趣旨를 後藤子에게 說明하엿다 더라
政局을 安定식히기 爲하야 此際에 政本兩黨은 提携할 것 此根本的一致에 依하야 爲先綱紀肅(正)及 朴烈問題及不景氣對策에 對한 協定을 할 것
右二項에는 政守同盟이라는 文字는 쓰지 아니햇지만 根本問題의 一致를 불러는 趣旨이엇다 더라

이 政爭이 ⋯ 하는 時는 他力은 ⋯ 交換할 것 ⋯ 分割을 企圖 ⋯ 는 斯의 提攜를 實行함에는 政友會는 慣用手段 ⋯ 어서 또 我黨을 攪亂할 것이 分明 하나 ⋯ 고 하야 床次總裁를 監視하고 深入을 警戒하는 者가 잇슴은 勿論 제安提携實現은 頗히 困難한 事情이 잇다 單只兩首가 다 後藤子의 力說하는 理想論에 對하여는 正面으로 反對할 수 업는 立場이 잇서 만 번 子에게 滿意를 보이지 아니할 수 업는 것을 보게 되엿슴으로 實行方法도 出하게 되엿다 亦是兩黨의 眞意에 依하여 는 容易히 ⋯ 一치 못할는지도 알 수 업 ⋯ 이 今後議會開會까지의 兩派提携의 成否가 난 우어지리 라 보고 잇다 더라

緣故林拂下 來年부터 實施

緣故林三百五十萬町步의 無償拂下에 對하야는 壓報한 바 이나 施行細則도 完全히 되고 準備는 大體整頓되엿스나 此에는 相當한 豫算이 必要함으로 今年度에 決行할 것은 中止하고 來年에 卽時實施하기로 되엿더라

大正中央二組合 地區大擴張

大正水利組合(七、六三九町步)中央水利(八、六五一町步)의 二水利의 地區擴張에 對하야는 土地改良會社及總督府水利課에서도 調査中이든 바 特히 會社에서는 藤井專務以下技術員의 實地踏査의 結果겨우 決定하얏는데 地區擴張 後는 現面積의 三分一乃至三分二以上의 面積을 增加하리라 더라

人事消息

▲李軫鎬氏(學務局長)三日歸任豫定
▲金應駿氏(辯護士)去三十日水標町二一 ⋯
▲알살、하이 ⋯ 事) 老齡 ⋯ 歸國

八面鋒

○英國外相칠 ⋯ 對한 英國의 ⋯ 恨歎한다고 ⋯ 聯合軍을 組 ⋯
○張作霖은、 ⋯ 엇다고、安 ⋯ 國軍總司令 ⋯ 가
○그런데 安國 ⋯ 討赤의 標榜 ⋯ 고、討赤이 ⋯
○豫算不足으 ⋯ 러먹는다고 ⋯
○緣故林을、 ⋯ 讓渡한다고 ⋯ 을、그러케 ⋯ 가

當選謝禮
今般黃海道瑞興面協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各位의深厚하신同情으로當選의光榮을受하얏삽기紙上으로나마感謝의意를表하나이다
大正十五年十二月一日

李光翼　竹內貞次郎　米澤太平　中川汀　吳成萬　李承茂　李春三

當選謝禮
今般黃海道瑞興郡⋯選擧에際하야⋯援으로當選되엿사오니紙上으로謝意를表함
大正十五年十二月
松田世三　常田源　趙寅　丹生　李在　梁元　崔炳　李恒　李南
郞吉利植燦一輪彦李事

●子女를願하는人士나 願치아니하는人士는見하라
男女生殖器 解圖

藥
약은 삭폐店에
合資會社 新井藥房
京城東大門通二丁目
電話本局二六六 振替京城五七六番

廣告

特許權新案等八個를有함
イリチウムカイロ懷爐
製造元 大阪 沖津製作所
鮮滿發賣元 木村藥房
No.1 ¥2.00 No.2 ¥2.50 No.3 ¥2.50 No.4 ¥1.00 No.5 ¥1.30

染料 都賣
染料原料商 東津洋行
京城府黃金町

六〇六號 一本六圓
柴崎仁壽堂支店

西洋料理 百合園

現在各地에收容된 思想犯三百突破

형창안에서도주의선전을긋치안하 다른죄수들자자자자적화시킨다고

罪囚赤化로當局頭痛

근년에이르러 조선내에는 현대의필연뎍색채를띈 공산주의와무정부주의등의사상범(思想犯)은 민족운동자와한가지로 해마다격증하야 사법(司法)경찰(警察)행형(行刑)등각방면의당국자로하여금 막대한두통거리를작만케함은 금일의사회상(社會相)이 여실히증명하는바이어니와 이운동이 금년에이르러서는 더욱심하게되야 그런종류의범인으로서 현재전조선에 수용되여잇는사람은 삼백여명에 달하는바 그들은 형무소안에서도주의선전을 조금도게으리하지안코 어데까지 충실히실행하야오든바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고 참담한구속생활을하고잇는 죄수들에게 정신뎍간극(精神的間隙)을엿보아 긔회잇는대로 그들의독특한기능을발휘하야 교묘하게주의를선뎐하야 죄수들의적화(赤化)를계획하는동시에 주의에대한연구와실천(實踐)을심각하게한다

현장에서 십이분간 뎡거하엿다하며 원인은식당차의 료리난로도떠라

논난로의 연통이달어서 텬정에 러올든까닭 이라더라

黃金町火災

이일오전여섯시사십분경 시내황금뎡(黃金町)삼뎡목사십이번디 김창현(金昌鉉)의온돌(溫突)로부터발화하야 때마츰부는바람에 불길은동가텬뎡(天井)으로옮겨붓는것을 소방대원이 출동하야극력소화에 노력한결과 다행이큰일에까지는 이르지안핫다는바 손해는 약팔십원가량으로 불난원인은연통으로부터이러난듯하다더라

濃厚한年末氣分

年賀郵便問題

금년의년하우편(年賀郵便)의특별취급도 례년과가티 금월십오일부터 이십구일까지 전조선의각 우편소에서취급하기로되엿는데이에대하야 톄신당국에서는 말하되 금년의 년하우편은 경제계가다소만회되는 형편임으로 전년도에비하야약봉활가량증가되리라하며한편 동내외에 달하리라하며한권만 동내외에 편종래의 례를 보면년말이림박하야 비로소년하우편을 차출하는것이만허서 못치럼 특별취급의계도를설치한취지가텰더히되지안는경향이잇슴으로금년에는 미리부터 선뎐용『포스터』 오천장을전조선에배부하고또파속지(把束紙)삼십만장을배부하엿스며또한편으로는년하우편의집중을취급하는 특별국(特別局)이 십팔개 처와 도착우편의분배를 취급하는 특별국팔개소를 설치하야 고용인으로는 뎡원외에연인원(延人員)삼천오백명을사역하야 만반에 유감이업도록하겟다더라

電線이切斷

거의세말을 당하게되매 시내 각상뎜에서는『세모대매출』의준비로뎜두에는 등과긔人발등의 각종장식을 차려서 거자거리에는 날노활긔를뛰는 모양인데 이로인하야뎐화(電話)의인입선(引込線)에고장이잘생겨서 뎐와가 불통되는일은 해마다일반이 잘늣기는바임으로 이해를당하야 일반상뎜에서는 더욱이주의를 다하야그러한불편이업기를바란다고

元山거처間島行同胞

十一月만二千餘名

一家族所持金平均不過八十圓

戶數로는九百四十七

그러치안하도뒤날리고또들리는 우리생활에설상에가상으로 년래로수재(水災)한재(旱災)로인하야더욱 더욱살수가업게되여 모다가죽음이쓸고정든고국을떠나 멀리멀리이 치운거을에간도(間島)방면으로살길을차저가는 동포가나날이 느러간다함은종종보도한바 어니와이제당국의 됴사에의하면십일월중원산(元山)을지나 간도방면으로도이주한사람이구백사십칠호에 삼천십일 이명인데 이들은 가계에 영원히 소지금이평균팔십원이며게중에는 오륙원밧게아니가진이도잇다는데이를도별로보면알에와갓더라

移住	戶數	人員	所持金平均
▲江原	五一〇	一、〇三一	八三、〇〇
▲京畿	三二〇	七四四	八四、〇〇
▲忠南	四	八	七五、〇〇
▲慶北	二三	五一	八六、〇〇
▲平北	四〇	一一三	七〇、〇〇

留置場으로直行

青樓에서佚宕遊興라가

본뎡서원에게발견돼포돼

貴金屬만數千圓竊取

지난이십삼일 시내병목뎡(並木町)유곽방향누(芳香樓)에 엇떠한청년한명이 만흔귀금속(貴金屬)을품고동두하야 몸에상당치못한 유흥을하는것을 소관본뎡서(本町署)원이 탐지하고 곳인치취됴한바 그는원적을 경상북도상주군생수면 청하리(慶尙北道尙州郡尙州面 城下里)이번디에두고 현주가부정한 전과이범안인택(安仁宅)(二三)이란자로금년십일월이십일경 대구형무소(大邱刑務所)에서 형을마치고나온후 맘을개전치못하고 십일월십구일 시내종로(鍾路) 이뎡목삼번디 금은세공상 (金銀細工商) 신태화(申泰和)방에 이르러 금지환(金指環) 수십개를 훔쳐다가 시내황금뎡(黃金町) 삼뎡목십륙번디 서상필(徐相弼)에게 이르러 일백사십원 칠십오전에 매각소비한것을 비롯하야 경향각디로 도라단이며 금시계(金時計)、금지환(金指環) 금비녀、은시계(銀時計)、안경(眼鏡)등 실로 수천여원어치를 절취매각소비한것이 판명되엿다는데 그의취조중에는 금지환금시계 기타 귀금속 수십개가 들어잇섯다는바 이외에도여죄가 만흘듯하야 방금엄중취됴를계속중이라더라

경계에싸저 잇는까닭에 로휴사원(老朽社員)의 신진사원(新進社員)대라고 권하더라

迎日殺人犯을 金泉서逮捕

지난칠월 십오일에 영일군영일면(迎日郡迎日面)에서 발생한 어부(漁夫)참살사건의 범인인 김천(金泉)출생의 허두천(許斗天)은그후교묘하게 종적을감추어오던바 지난십월 삼십일에 김천아포면주재소(金泉牙浦面駐在所)부근을 통행하는것을 거동이수상함으로 그곳경찰관은 주재소에 다리고가서 엄중히취됴한결과 자긔의범행을일일히 자백함으로 의외에 중대범인을 톄포하야 자못의기양양히 범행디인 영일로압송하엿다더라(김천)

새벽서리찬바람에

失戀投江한靑年

＝고달픈객디생활에서시달리든중 애인의변심을비관하야죽고자＝

洛東江上에情熱悲劇

지난십팔일밤이십팔일 경북안동(慶北安東)락동강상류(洛東江上流)영호두강 중으로몸을던진우에 나이 이십남짓해보이는 건강한 청년한명이 뛰여들자 뒤를조차 오는쏫가튼 미인에게 발각되야 드듸여 죽엄의길을 찻지못하고 로뛰여가서 몸에뛰여 들엇스나 그뒤를뎐려하야 조차뛰든하간 집동금에게 발각되여 다행이죽지는아니하엿다더라(안동)

그청년의 자살하고 못한 원인을 들어보면그청년은경긔도 강화군시내서 신문리(江華郡內新門里)에사는홍재범(洪在範)(二六)이란사람인데 그외에인 인천기생 김동금(金東金)이란당년 이십이세의 어엽분녀자와서로 정이들어서 각디로두로부터 이주일전에 안동에이르게되야 동부동녀관업하는 장천옥(張善玉)의집에서 류숙 하고잇는중인데 근본김동금이란 녀자는 얼골어엽분데다가 산애를호리는듯한애교까지 넘치는 터이라 그남자는 혹시나엇덜가텹려를하엿더니 지난이십 칠일에 밤은깁헛는데 그들은 객디에서 고달푼십회를 금치못하야 한잔의술을마시다가 엇전 까닭인지 그녀자의 사랑이 변함을발견한남자는 쓰린세상에서 고독함을 늣기고 고만비관하야 죽기를결심한후 그날밤 새벽에전긔강으로

腥血만淋漓하고

屍體는不知去處

청주미원면에괴살인사건

犯人踪跡도五里霧中

충북청주군미원면(忠北淸州郡米院面) 면소사(面小使)리경식(李慶植)(三〇)은지난이십이일그면공문을 가지고 각동리에전날하라고 나간후 이십사일까지도 라오지 아니함으로 동면소에서는 그의행방을수색하든바 마슴동면청석교(靑石橋)압쌀개바위에서 마저죽은사실이 판명되엿다는데 이제 그자세한내용을듯든다면 그피해자리경식은그면소사(小使)로십오년간을재근하엿다하야 그날도 마츰면공문을가지고 각동리에전달하고 도라오든중 전긔장소에서 동면금관리(錦寬里)박련화(朴連花)와말다툼을하는것을 마츰 동행하든 김성진(金成鎭)이가보고반류를 하엿스나 그두사람은 종시듯지아니하고 싸움으로 김성진는밤이느저 그대로 돌아오고만것이라는데 그후 리경식은박련화에게 마저죽은모양이며 이급보를접한 당디경찰에서는 범인을톄포코저하엿스나 벌서 범인는어대로인지 종적을 감추고업섯슴으로 즉시사방에 수배를느리고 범인을 수사하는동시에 일방으로는 시톄를수색하고저 면민전부를 출동시켜 수색하엿스나지금까저 발견치못하고 매우고심중이라는데 견긔 피살장소에쌀개바위에는보기만하여도소름이 끼칠듯한 셩혈이 림리히흡덕슬연이라더라(보은)

熱湯에 小兒가溺死

지난삼십일오후 다섯시경에 평양광성고등보통학교 (光成高等普通學校)교장 김득수(金得洙)씨집에서는 어린아이가 가마에 빠져죽엇다고 일대소동이 잇섯는데 그내용을 들은즉김교장의둘재아들 네살먹은 아이가방문미테서 놀다가 물연히물을쓸이든 가마가운데 너머저서 즉시 긔절이된것을 집사람이 발견하고 의사를 청하야응급 수당을하엿스나 마츰내 절명이된일대참사가잇섯다더라(평양)

姜英均等判決

안변청년련맹(安邊靑年聯盟)의 집행위원강영균(姜英均)외사명에관한 출판법위반사건(出版法違反事件)은 지난달삼십일오전 십일시부터 함흥디방법원 원산지령(元山支廳)에서 리판사(李判事)의 담임과도무 [illegible] 검사의립회로 개정하얏는데 리판사로부터 사명의피고에게 각각벌금오십원의판결을언도하엿다고

吸煙하다들켜

無期停學

녕해보교생

녕해공립보교륙년생(寧海普校六年生)리래옥(李來旭)、김재순(金在順)삼명은 지난달십륙일 류리교장(柳瀨校長)으로부터 무긔뎡학(無期停學)의명령을밧고 하엿업는눈물을쏟리며 정든교문을떠나 갓다는데 이제자세한말을듯건데 학교압 어느자던거포에서 권긔세학생이 담배를피우다가 교장선생의눈에들켜 모와가티무긔뎡학을당하엿다는데 학생의 담배가너무심함으로 학교 당국측에서는 매우우려중이라더라

되야다른 공장에까지 손해를보게하는것이며 또는 배후에평남[illegible]씨와동업이 되자마자 금[illegible]맛고 그와가티 무리를감행함에 대하여는 사회뎍으로 용서치못할일이라고 일반사회에서는 여론이 비등하야 실로문뎨는점점확대된다더라

悲觀하고 老翁이縊死

영덕디방에서

영덕군창수면 갈천동(盈德蒼水面葛川洞)칠십팔번디 황병오(黃秉五)(六五)는 지난이십륙일오전네시경에 자긔집에서 목을매여 자살하엿다는바 내용을 들으면 권긔황병오는 객디로 삼십여년동안이나 돌아단이며 자긔집에서는 죽은줄알어 오든바 병오는이리저리단이든중에지금으로부터 팔년전에 모진병이들어 집에나 차저오면위안을바들가하고왓던바 아들은밧에쫏겨 방에볼도너 어주지안코 음식도 어더먹을수업고 또는아들이 도망까지하엿슴으로 그는만사가뜻대로안된가 지도맛는것이업슴을비관하고자살한것이라더라(영덕)

漁場主의暴利

현시세사십전하는것을 이삼오전에강제로산다

함남문천군 귀산면(咸南文川郡龜山面)에 잇는 일본인어장주 문천양려합자회사 (文川養蠣合資會社)에서는 다른곳에서 마른굴(乾牡蠣)한방중에 삼십오전내지 사십전식하는것을 이십오전식에 강제로 사들임으로 그곳주민들의 원성이 날로놉하간다는데 이제그자세한 내용을 들으면권긔 귀산면해안과 명효반도(明孝半島)주민들은해마다 그곳어장에서 굴을캐여 생명을유지하여오든바 어장의반은 권긔일본인의 소유가된까닭으로 그구역안에서 캐인굴을 권무어장수에게 판매하기로계약을처결하야가지고해마다시가대로 판매하게되얏는데어장주는주민들이자긔에게 굴을팔지아니하고 다른곳에는 판매치못한다는 구실하에서 그와가티현시가보다십전내지십오전의폭리를취하야 강제로산다는데 이에대하야 주민들은 엇지할수업시권긔어장주에게판매하야왓스나 이러한현상으로는 도저히생활을유지할수업는터임으로어장주의 눈을속이어 다른곳에도판매하는중이나 만일발각이 되면 굴을무리하게 가저감으로 일반의원성은날로놉하간다더라

獨監이必要한 重罪犯一千

현재독방은오백개뿐

孤島刑務所도計劃

이것에대하야당국에서도충분한 고려를하야 특히사상범의 수용에대하야는주의에주의를거듭하며다른 죄수들과의 접근을피하고될수잇는대로 독방에 수용하며 작업(作業)에도 공동작업장(共同作業場)등에는나오지못하게할방침이라는데현재독방을요하는중죄범은 실로 이천여명이나되나 독거(獨居)할 감방은겨우오백밧게되지 못하는 조선의 행형(行刑) 현상으로서는 도더히그들을 각각 독방에수용하기는매우 곤난하다하며 조선총독부행형과(行刑課)에서는벌서부터이문뎨의 근본방침에 대하야고도형무소(孤島刑務所)설치혹은특종형무소의 신설등 여러가지계획을세웟스나재원(財源)기타의관계로 구톄화 되지못하엿다더라

西大門刑務所에 獨監百個增設

약이만원의경비를들여

◇……應急的施設로

이런현상으로나아가면 행형의목뎍을 달할수업다는 리유알에 명년도에는 엇더한방법으로 든지어만원의예산을계상(計上)하야서대문형무소(西大門刑務所)에 독거감(獨居監)일백호를 증설하야 응급뎍조치를 강구하게되엿다는바 모든방면에 재정을긴축하는 오늘날 형무소의신설어매우 곤난한이때이지만 행형의완벽(完璧)을긔하기위하야는 독거감의증설이 목하의데일급무라고모(某)당국자는말하더라

武道界統一

玄武會

유도검도의권위 처씨가모혀창립

지난십일월 이십구일 조선무도계(朝鮮武道界)의원훈이오또한권위들 가진로긔풍(盧基豐)박재영(朴在英)강락원(姜樂遠)여운홍 呂運弘) 한진희 (韓軫熙)등 제씨의 발긔로조선현무회(朝鮮玄武會)를 창립하엿는데그목뎍과 취지는 조선의 무도계(武道界)를 통일하야 유도(柔道)와 검도(劍道)의대표뎍도장(道場)을 설립하야조선 민중의상무뎍정신(尙武的精神)을장려하며 또한 일반의덕성(德性)을함양하야 민족뎍으로 원긔와톄육을 양성하라함인데 림시사무소는 원동(園洞)백구십 륙번디조선 무도관 (朝鮮武道館)에 내다더라

食堂車火災

경부선오천에서

십일월삼십일 오후세시경에 또다시 경부선(京釜線)오천세천간(沃川細川間)부산긔뎜의백륙십구『마일』오십『첸』에서 동일오전구시 십오분에 부산을떠난데칠렬차가 진행중에 동렬차의식당차(食堂車)연몰에서 불이일어낫슴을 발견하고 즉시뎡거하고 진화한후 진행을계속하엿슴으로 이로인하야 동렬차는

道路改修費는 受益者負擔

일본도시제도를본떠

府廳에서立案中

도로와수도의 수축(修築)하는 공비(工費)를전부세금(稅金)밧는데서 지출키는 곤난함으로든 본에서도 그와가든때에는 공비총액의 사분의일로부터 내지이분의일까지 시설도말미아마 직접리익을밧는 사람에게서 징수하는것이 도시계획법으로도 실행되는바경성부에서도종래수익자부담과 류사한방법으로 공사를 완성시킨일이잇섯스나대부분은 귀부의 형식이엇섯는데만전(萬全)의 계획으로이를진행함에는 수익자부담의 제도를 세우지안호면아니 되겟나하야 부당국에서는 요컨무러 일본각도시의수익자부담케도를 참작하야 립안(立案)을 시키는터인데 이것이 완성되면 령회위원회 (總會委員會)에 부의실결더이라더라

東拓의移民 昨年보다倍增

이제는이민할땅도업서서

同胞間島行과一對照

날로또늘려가는 조선사람의살림사리는래일에는 엇덜는지래년에는 엇덜는지하면서 뻐를기다리기도하고 또는어대로 가면 사람답게는 못살지언정 련명이나하여갈가 하면서 징소도골느기까지하엿스나 살만한곳도 눈에뜨이지 안는다그나마 일본으로부터 해마다몰아들어오는 소위이민이라는것에 날로 조선사람은 밀려쫏겨 두백데로내려오는 고국의옥토를등지고 차되찬간도디방으로 이사하는 무리가 지금에이르러서는 그수효가 지헤아리지못할만한 한편에 동력의 이민은전년도에 비하야 증가된 주의할 것이 잇다 그것은 동쳑(東拓)의리만 잣거리면서 동력 東拓의 이민이 거의날마다 현해탄을건너 정밟저접커럼 조선의관문의 한아인 부산에상륙을 계속하더니 불과몃해에 수용력이겹핍되겟다는 형편까지 이르럿다 지금그들 동력의 이민모집의비교더 성적을보면 전년도신립뢰사백삼십인에 비하야 금년에는 륙백이십일인으로 약 이백인이 증가되고 그외특별한 현상으로는 조선내에 재주하는자로이민을 원하는자가 잇서팔십 그것도 전년도에는 일백팔십팔인이던것이 금년에는이백사십일인으로 증가되엿는데 물론 조선은 농사경영에유망한데다가 또배경이 든든한까닭에 그와가티 해마다 그수효가증

京城府舊廳舍

競賣入札한다

희망자는직접조회

경성부구텽사(京城府舊廳舍)는 터(基地)와건물(建物)을각각분리하야 경매에 입찰(入札)식여매각(賣却)키도하얏는데 건물은 구텽사와 원토목과(土木課)와 원본뎡경찰서의민뎍계(民籍係)와 위생계(衛生係)도 매각예정액은 약오만원인데 희망자는경성부내무계(內務係)로직접조회함이 조켓다더라

電氣料金減下後 社員을着着淘汰

수입감소의대응책으로

京電의窮境對策

한참동안 계속뎍으로 이러나는 사회의여론에 필경 엇잡수업시 동력(動力)과 뎐등(電燈)료금을감하하게된 경성뎐긔회사(京電)에서는 그후그에대한대응책으로 여러가지책동을 꾀하더니 드듸어사원을 정리하기로하엿다는데 지난오월에 데일차의사원도래가 잇섯슴에도 불구하고지난달이십오일과 삼십일에 이회로논하 데이차의 직공도래를감행하엿다 그일회인 이십오일에는 뎐차과공작소(電車課工作所)의고급직공 삼십명으로이들은종래 동공작소에서 뎐차를수리하는외에 사용품(社用品)을 제작수리하엿든것을 압흐로는 그규모를 축소하야 뎐차수리만을행하기로 한까닭에 여유의사원이 생긴것이라하며 그다음데이회는 뎐긔과의고용원 십수명이라는데 그정리는 동회사가공

栗山、日新兩工場 女工도盟罷斷行

안흥염직소녀공들의맹파에동정해 률산、일신두공장녀공도파업단행

形勢는刻一刻險惡

긔보=안주안흥염직소(安州安興染織所) 공녀들이 주인의압박으로인하야 동맹파업을 단행하엿는데 가든공녀조합원 동무인 률산염직소(栗山染織所)공녀사십여명도 지난일일오전 아홉시부터동정파업을 하엿스며 일신견직소(日新絹織所)공녀삼십여명도 그날오전에는 건과가티작업하다 가돌연정오무렵권부가동정파업을 하엿는데 주인측에서는 아모리 출근하라고종용하엿스나 한사람도 나오지아니하야 목하형세는 각일각으로위험한사태에 니른다더라

홍염직소 공녀들이 주인에게강압을당하고 동맹파업을 하엿스며딸하서 일신률산 두공장공녀들은 동정맹파까지 하엿는데 주인측에서는 금권의권력으로 우리를 위협코저하나 우리는정도를 밟아나갈뿐이요 하등주인에게 해를씌치지안흔 이상에는 쏫까지싸우려암니다 다만문데는 맹파한동무중에는 목하생활이 곤난한사람이 몃사람됨으로 이를구제할실이 좀어려운듯하나 그러나 그까짓것도 그러케 락심될바는 아니고 그저서로서로 노나먹다가 굶어죽을지언정 아모죄도업시는 굴할수업소』(안주)

工場主互相衝突

동맹파업에대한대책이 일치되지안하갈팡질팡

별항보도한바와가티안주안흥염직소공녀들이 동맹파업을 한데대하야일신(日新)률산(栗山)두염직공장공녀 전부가 동무들에게동정을 표하기위하야 동정파업을하게되엿슴으로 뜻밧게 일을당하는 주인들은 금후대책을 강구하고저 밀의하는중 이라는바어떤몰상식한주인은안흥염직소와보조를가티취함의사를말한다하며어떤주인은동정 휴업이란근본으로찬동할바이나 그러나주인과서로대처된맹파가 아니이상하등의돈도업시몰면파업을난행함은주인을무시한것인즉금후를징계키위하야사죄장이 나밧자 는등의론이통일치못함션더러 률산염직소주인중 한사람 인 모씨는 공녀조합을어대까지 반대하여야지 그러치안코 묵인한다면 자긔는 공장을탈퇴하겟다하야보조가자못산란하다더라

『飢死할지언정 屈服은絕對로不能』

＝생활이끈난해굶어죽드래도 죄업시굴복치는못하겟소!＝

(女工組合幹部談)

이번사건에 대하야 공녀조합의 중요한 간부한사람은 다음과가티 말하더라 우리조합원 동무중 일부인안

靑年團體奮起

쏫까지내막됴사

업소』(안주)

안주염직공장공녀전부가동맹파업을단행한데 대하야 안주청년단데와우의단데가 서로 련합해 가지고그사실의내막을텰더히됴사하야선명히 가부를세상에공포하려이며녀공조합을옷까지후원해주기로 되엿다더라(안주)

安興工場 非難聲沸騰

확금의힘을밋고서 무리를감행햇다고

물리해한 안흥공장이 도화선이

종명자

▲경제규박으로로살수들이업스니싸가진협잡이다만허▲시내동대문경찰서에는 사사로죽허가업시계집에서남몰래머리를싹거주고「하이칼다」머리한아싹는데 십팔전식을 바다먹다가 들키여일주일의 구류를바든사람이잇섯다 ▲오죽 생활이끈난해야 그런좀스러운 협잡을 할리가업슨즉 그역동정할만한여디가 잇스나이런것은 좀뷔험한일이야▲무슨소독(消毒)인들얌전히하엿슬라구

春香傳소리판全篇完成

古代歌劇

永遠히 埋沒의運命에서 가든半島古代劇「春香傳」로 蘇生의 깃봄을 일 日蓄의努力과半島名唱李東伯、金秋月、申錦紅三人의巧妙로 再生되여 일축조선소리판으로出現하엿슴니다

全篇十八枚中 第一回 發賣(十一月) 第二回 發賣(十二月)

李夢龍廣寒樓求景歌(二枚續) ◆春香別歌(三枚連續)

吹込者一行 李東伯 金秋月 申錦紅

十月부터每月繼續하야發賣함니다 詞說은全部印刷하하添附함니다……

日蓄樂器와 일축조선소리판은그堅雨優美한點으로나數百數千何等使用함에도秋毫도變함이업고소리에큰點에잇서他에比類업는것은임의天下에公認된바임니다

數十種의樂器와六百餘種의優秀한조선 소리판의總目錄는請求하시는대로無代進呈함니다

此外半島名唱宋萬甲 金昌龍朴春載等일흠 잇는歌手의소리는全部吹込되여잇슴니다

일축 株式會社 日本蓄音器商會 京城府黃金町一丁目

籾摺機

最新型吸入撰別裝置 얌마ー籾摺機

고무白 一日 三百俵

唐箕附 나쇼나루精米機

農家의福音

오후젯또 얌마 石油發動機 一 馬力二·三·六·十·十五

目錄送呈

京城驛前 山岡發動機 京城支店 電話本局長一〇〇三番 振替京城一一五二五番

廣告

今番金陵文藝社書畫賞募集은規則을改正키爲하야一旦發表廣告를停止함

金泉郡旭町 金陵文藝社 白

薄利多賣主唱하오니一次試用하시면本社信用과品質型式의如何를可知

山陽福壽대머리特製品 洋靴底米國머리징紅革

◎短靴 五圓五十錢 ◎編上靴 六圓五十錢 ◎淺ゴム靴 六圓五十錢 ◎蹴球靴 六圓五十錢 ◎特製運動靴三圓五〇 代金引換送料四十五錢 三足以上郵料負擔함

京城鐘路六丁目一五八 合名 豐靴社

金牌受領

머리를검고길고윤택하게합니다

本舖大阪西區靱中通一三宅堂

獨逸製高級腕卷時計

朝鮮日報讀者에限廉賣

果然 投賣

示時正確 機械堅牢 精密保證 十 形

特價

先發注文者百名限腕卷를無料添付

金六圓九十錢 ニッケル製圓形側特品

金七圓五十錢 ニッケル製型側特品

金八圓五十錢 金張製圓形特品

金九圓五十錢 金張製變型側特品

代金引換送料四十錢

●注意 先金으로全額又는一圓以上先送金을要함 本社는同胞文化를爲하야奉仕的營業임으로 한商品만取扱不正한玩具的商品이아니오니 安心하고注文하시요信用은日報社에照會하시오

京城本町二丁目 우쓰보야貿易部 電本二五二七 振京二三二二

가평론

조선에서도금주 운동을이르키자

塔園生

◇인류의 평화를 교란하는 여러가지 원인가운데에 술처럼심한것은 업슬것이다 술먹는다는것이 직접원인이 아니되는경우가 비록 잇슬지라도 그역시 간접으로는 평화를교란식히는 동긔를 만들수가만타고 생각한다 술먹는것이지금까지 모든인류의 경험으로 보아서도 조리고하는이는 업슬것이다 다만문데되는 것은 엇떠한 경우에는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는데에 지나지못할것이다 결코 술을먹는것이 본질뎍으로 조흔일이라고 말할용긔를 가진사람은「알콜」중독자나「알콜」찬미자외에는 업슬줄밋는다

◇이와가티 조치못한 것을 알면서도 먹는다는것은 암만 생각하여도 괴상한 현상이라 고아니할수업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리론이다 실디의사정은 아니다 사회의 모든제도와 환경이 그들을 술구렁으로 모더너케 하는것이다 이러한 제도와 환경이 그대로유지하는이상에 개인의 자발뎍으로서는 술을끈케하지는 못할것이다 거의유뎐뎍으로 술먹음을조장을 타가지고나온 우리들이라하여도 피언이아니라고 생각한다 술을 먹을만한「에네지」를가지고 술을권하는세상에 나온사람으로서 엇지술을 피할수잇스랴!

◇술을 아니먹도록 하는때에는 결국엇더한제도의변경이잇서야할것이다 그러치안코는될수가업다고생각한다 미국가튼데에서술을국가의법률로써금지한것도그러한까닭인가한다 개인의자각을기다리는것은너무나오활하고공상뎍이다

또한일조에될수업는일이다 그러나그나라민족의교양뎡도와 생활관계를헤아릴것업시명하노로 금주를시킨다하여도 될리가만무하다 결국은 그나라 민족가운데에 그러한 운동이자발뎍으로성하여나라국민야뎍의효험이비로소커질것이다 이것은 곳그민족의 생활에대한 교양뎡도와 또는생활을 어느뎡도까지 굿세히할 발휘하라는것을 알수잇다

◇그럼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미리부터 그러한 금주운동이일반으로되기를간절히바라는바이다 이러한의미에서조선녀자긔독교절제회(朝鮮女子基督敎節制會)가큰 단톄에서 이운동에 크게분투하는 것은 두손을 들어찬정하고 장래의 충실한 발뎐을 바라는바이다

조선녀자긔독절제회가 금주를크게선뎐

◇……第三週年긔념을긔회로 그동안금주한이도만하지고 지회수도벌서륙십에달햇다

조선녀자긔독교절제회(朝鮮女子基督敎節制會)의삼주년긔념식이 명삼일 오후칠시부터종로중앙긔독교 청년회관에서 열리게되엿다 일즉이 이회가사회뎍으로 널리소개되지는 안엇스나 그회의사업은 실로 위대하엿다할지니 본회를 세운목뎍이금주선뎐(禁酒宣傳)인만큼 그들은말로나 글로나 개인의압헤서나공중의 압헤서나「몸을망하고집을 패하고 나라를 어즈럽게하는술을 먹지맙시다」부르짓기를쉬지아니하야 창립삼주년이 되는오날에는 단번코술을 끈은후사업을성공한이가 그수를 헤일수업슬뿐 아니라 이회의회원이전국을통하야삼천여명이요지회(支會)를둔곳이이십칠개소요지회의 수효가 오십삼처나된다한다 이회는 일천구백이십사년 륙월에서양인『미쓰틀닝』의발긔로시작되야 협성녀자 신학교안에회관을두엇다가 회원이 증가되고 회의사업이 확장됨을 따라서내다옥뎡(茶屋町)에 회관을 설치하게되엇다 이회의 총무손메리(孫袂禮)녀사는 모진 바람사나운비를 무릅쓰고 삼천리강산을 편답하며 술의해독을말하고동포들로 술끈키를 눈물로써 권고한지 이미삼년이되엿스니 그의발자최가 이르는곳마다 일이십명이라도 금주하기를맹세하는이가생기지안는곳이업섯다한다 이회의 사업으로 손메리녀사가 삼년동안 금주강연을다닌곳은누구나가히놀라지아니치못하리만큼 만흔수효를 나타내엿스니 선천、녕변、평양、재령、해주、원산、성진、대구、부산、청주、순텬、전주、군산、텰원、원주、리천、경성、려수、당모리、용당리、군모리、부산진、임실、오수、운산、북진、광산、진다리、고흥、관리、벌교、보성、농주、화순、담양、목포、텬안、홍성、안성、충주、례산、온양、공주、조치원、진산、가문암、등이오이상각처에는모다 손녀사의손으로 지회(支會)를설립하엿다한다 녀사는압흐로 조선의남쪽끗인제주도(濟州島)와 우리동포가표류하는북간도(北間島)로 금주선뎐의 길을떠나려한다하며 명삼일에열리는 이회삼주년긔념을 리용하야 이회에서는대대뎍으로 선뎐을계획한다는바 당일순서는 의사구영숙(具永淑)씨의『술』이란 문데의강연과『술먹는이의가뎡』이란연극과『술을금하자』는노래—즉금주선뎐에대한순서이외에『리화코러쓰』와피아노독주독창등 자미잇는순서도 잇스리라더라

(사진은 금주선뎐에몸을바친 손메리녀사)

□……근화녀학교후원회주최의데이회근화연극대회의광경……□ (일작청년회관에서)

술의영향

머리쓰는이의 큰장애물

성적이배이상으로 틀리고만다

독일『쉐버리아』는 맥주를만히제조하기로 세계에 뎨일유명한도시인데 그도시의시학관『헤커』교수는 그도시학생사천사백륙십이명의 술마시는분량과 학업성적을 자세히 됴사하여본결과가잇다 그중일천삼백오십팔명은 몃칠에한번식마시고 일천칠백륙명은 하로한번식마시고 륙백오십칠명은 하로두번식 마시고 이백십일명은『쎄루』나『위스키』를약이홉반식 매일마시고 륙백삼십팔명은 전혀마시지 안는것을 됴사하야 알게된후에 술마시는 다섯계급학생의 학업성적을 됴사하니 술을도모지마시지안는 학생들의 성적통계는 잇다금술을 약간마시는학생의 성적보다 배가량호하고 술을만히마시는 학생의 성적보다는 오배이상이 더만흐며성적이 술마시는 반비례로되보되는 동시 실수와 범죄는술마시는정비례로증가되는것을발견하엿다 더라

운동선수에게 술은금물

술먹고운동하면 대개는실패

술은 운동선수에게도 엄금이다『풋뽈』이나『베쓰볼』이나『마라손』경주를물론하고 술마시는이에가는 운동선수될 소망이업다하여도가하다 미국『보수튼』에서는 해마다 한번식『마라손』경기대회를 개최하는데 그때에는미국각처와『카나다』에서선수들이모히여약일만리거리를경주하게되는것이다 그런데 년년히 일등당선을하는이는술집영업도 가기실혀하는이라한다 그리고세계뎍으로 유명한『마라손』선수『수란드』씨는미국에와서삼후세번경주에금『메달』넘납개와이만봄의거액을타가지고이태리로도라간일이잇는바 그는얼마전에역시『마라손』선수로영국에갓나가술한잔마신것으로그경주에실패하고는 그후로 다시술을마시지안는다하며『남아메리카』의유명한『마라손』선수『해페론』은수년전 미국『마라손』대회에 왓슬때에『경기하는날일긔는조왓스나 두마일을 남겨노코나는술두잔을 마시엿습니다 그것이큰실수엿지요 그로인하야 약반마일을 남겨노코 경련증이이러나서 나는일등상을 일허씁니다』하고말하엿다한다 과연 술은운동선수에게도원수이다

懸賞 「기록」이야기

록기이야기는무엇이던지적어보내주십시오 그중에서자미잇는이야기를뽑아서좌긔와가티상을들이겟슴니다

一等 一篇 拾圓
二等 二篇 各五圓

投稿期限 十二月十五日

주의
一、이야기는아못조록자세하고간결하게적어보내주시고
二、실디로잇는일이면디명과그정도지세히써보내주시오
三、投稿封皮에는「록기이야기原稿」라고朱書하시오

朝鮮日報社

이야기거리

엇던미국사람이 배를 타고려행을하다가 난파를 당하고 소인국(小人國)근처에서 불행히 파선을 당하엿다 그는간신히 헤염을처서해안으로 건너간후 얼엇든 몸을녹이고저술을한잔마시엿다 그고요한해안에서 따뜻한해빗을쪼이고 안젓노라닛 어느듯몸이노곤하여지고 잠이들엇다 그가잠들엇슬때에소인국사람들은 거미줄가티가는노끈으로그를여러번 동이엿다 술이깨고잠이 깨여 눈을떠보니 자긔의수족은 단단히 결박을 당하엿슴으로 풀을비롱거려 아모리든호려하여도 되지안엇다 비록 난쟁이들의 작란이요 가는노끈일지라도 그는도리혀 그것을든 길이업서 여러시간 지난뒤에 다행히 지나가는 엇던사람을 맛나 구원함을입엇다한다 비록 한잔일망정 술을마신맛으로 그는장본들에 자긔의몸을 결박하는것까지 의식(意識)하지 못하엿든것이다 아!무서운그술 조끔이라도 마실것인가?

상의

술은참말치위를 막습니가

「문」저의남편은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때집에도라올때는 의례히 술이얼근히취합니다 그래서 어려운살림에 날마다술먹는돈으로 허다못해 매일사서 콩나물국을끄려도 온집안이 둘러안저 먹으면 조치아켓냐고 말을하여도 치워서 몸을독이라고 도라오는길에 두어잔식 마시는것이라하며 무가내하 듯지안습니다 술은참말 치위를막읍닛가 (中學洞一主婦)

「답」술이치위를막는다고생각하는사람이 만히잇스나 실상은 술이신톄의열을감소시키는것이올시다 술을마시면사람의신톄표면에잇는모든모세관을주장하는심장을마비식혀례외로더운피를 만히피부표면에 실어보내게 됨니다 그때에몸은 피부신경으로 인하야 뜻뜻함을 감각하게되나 례외로만히나온더운피는 외계의 찬공긔로인하야 식게될때 톄온이대단히 감소되야 몸에필요한 톄온이업서 집으로 얼어서의식을일케 되는것입니다 술마시는이들이 흔히잘얼게 되는것은그까닭 이올시다(一記者)

어데로가노

金[illegible]建

어데로가노 어데로가노
굴러가는 밤차
부듸치는 찬이슬 실타고도
안코
몸부림치며
어데로가노
헐벗은 쌔흙에 날뛰든손는
쌔럿한 품속에 몸나는손는
모도다 게오름에 줄리는때
무거운짐 질머지고 어데로
가노
굴러가는 밤차

박애사업가 『홀』부인귀국

안식년을당하야 일년간예뎡으로

삼십년동안이나 조선민족을위하야 박애사업(博愛事業)에헌신을다한 동대문부인병원장『미세스홀』은 칠년만에도라오는안식년을당하야 금이일 오전열시경부선특급렬차로 본국 아메리카를향하야 떠낫다는데 경성역에는 부인의공로를 감축히녀이는조선사람、아라사사람、일본사람、미국사람들——각양각색인들의 다수한송별이잇섯스며 고국으로도라가는 그는 도로혀고국을떠나는듯한 구슬푼회포로긔차에몸을싯고「조선은 나의데이 고향이올시다 나의동사도 조선에잇고 나의하고저하는 사업도 조선을떠나서는업다하겟슴니다 비록 일년후에 다시도라오기를 긔약하고도라가되 여러분과 잠시라도떠나는것이매우섭섭합니다」하고 다정하고의미깁흔작별 인사를 하엿다는바 그는본국에 가잇는동안 조선녀자의학교(朝鮮女子醫學校)창립에대하야 만히활동을하리라더라

二十青孀이 情郞과逃走

부모의눈을피해

평남평원군덕산면유촌리(平南平原郡德山面愉村里)에사는 함모(咸某)의딸 함계화(咸桂花)(二〇)라는 젊은녀자는 그동리에 사는권장손(全長孫)(三〇)이라는 청년과 지난이십륙일 심야삼경에 서로손에손을잡고 감시업는 한 자긔부모들의눈을피하야 어데로종적을감추엇다는데 이제그 내용을듯건대 계화라는녀자는지금으로부터이삼년전에평남대동군재경리면(平南大同郡在京里面)어느부호의집에 출가하얏다가 불행히도 그남편이세상을떠낫슴으로 할일업시 계화는자긔친정인 권긔주소에와서 외로히 구슬푼세월을 보내오든바 우연히 금년팔월 십오일부터 권장손이라는청년과 자긔의 애닯은사정을통하게되야 서로교제하는가운데 벌서 두남녀는 남모르는정을 서로주고바더서 날이지내갈사록 얼크러진두 남녀의정은 끈으랴 끈을수업서 첫는데 이긔미를눈치채인 그들의부모들은 종종개유도하고 엄중한감시까지하여서 그들의교제를 절니도시키지안는 방법으로 일절계획을 뭇밧게 나오지못하게한까닭으로 이에두남녀는 그와가티 다라난것이라더라(평원)

熱風 【二九三】

中西伊之助 作
李益相 譯
李青田 畵

세사람은 아죽것 저때저자 거리를 것고잇섯다

「실라」씨! 레도라고 지금 말슴하섯지요? 그레도란 엇던 레도를 말슴하시는것인가요?」

「안늬」는 물어보앗다

「그것은말슴입니다 「하르타르」에 반대를 할가말가하는 것을말한것입니다」

「실라」는 대답하엿다

「다만 그것뿐입니싸?」

「그럿슴니다 그것밧게는별 수단이업슴니다 우리들의 지금형편으로말하면 도모지 엇더케할수가 잇서야하지안켓슴니싸」

「……」

「야시야이!」

하고 「안늬」는「야시야이」를불러다보앗다

「……」

「야시야이」는 아모말도 업시 「안늬」의 얼골을 바라보기만하엿다

「야시야이! 당신은 이번에할일을 내게로 들려주오!…… ……」

「엇더케 말슴이 야요!「안늬!」씨!」

「야시야이」는 물엇다

「아니요 여긔서말할것업시이 뒤에말하지요 셋이잘상의를해 보지요」

「……」

「야시야이」는 한참동안잠잣고잇더니

「나는요 좌우간오래이세상에 부러잇기 어려운몸이야요「안늬!」씨!그러면 저도 함께죽겟서요」

「야시야이」는 나즉한목소리로고적한빗츨 띄워가지고 속살거리듯 말하엿다

「그래도……」

하고「안늬!」는 슬푼듯

「당신은 충분히할일을해서이제는 만족하겟지요나는이「칼커타」로온뒤도 무엇을 햇슴니싸? 아무것도 못햇서요그러니싸 이번에는 내가해보겟서요!……」

이러케말하고「안늬」는 가만히「실라」의 얼골을처다도 바라보앗다

「안늬!」는잠잣고잇섯다 영길리황태자가 올때에 인도의 혁명주의자들은「하르타르」에 반대하는 뎡도의 운동밧게는 아무것도 할수업는터이다

「안늬!」는 잠간동안생각하면서 걸어갓다 그리다가 그는 다시 물엇다

「그러면 그때에「한터!」「총독이 오겟지요?」

「한터!」「총독 에에「한터!」경도 오겟지요「한터!」는 엇젯든지 황태자의 선도(先導)를하게되니싸요……」

「……」

「안늬!」는 또잠잣고 생각하엿다 그리고는 머리를 숙이고 한참 걸어가더니 무엇을결단한듯

「실라」씨!저는 당신하고좀 상의해볼일이 잇서요」 하엿다

「그래요? 상의할일이 잇스면 말슴을하시구려 듯겟슴니다……」

「실라」는「안늬!」의얼골을 흘긋바、보며말하엿다

◇天氣豫報 晴一時曇
◇比較 三十日 正午 五三、六 最低 三〇、〇
◇日出前七時二九 晝間九時四七
◇日入後五時一六 夜間一四時一三

멍텅구리 가난사리 {42}

저승길에

(一) 깨여난 멍텅이
휘 여긔가저승인가? 엇재쪽우리세상과가타이

(二) 저승길줄만알고 뵌놀로
이런제 극락세계가어데란말이냐? 갈대로가보쟈!

(三) 마주치고보니 죽엇다든친구
아이구!고야!
이쿠!이마야!

(四) 으흥흥저승에서 부자가되엇나?
그누구야?으흐흥당신은저승에와서부쟈가됏소그려?
엉? 멍텅구리?

꼿아름다운 얼골이되는

백미안수 白美顏水

도코화장품연구소 창제의…신식백분

▲이분으로화장하시는분은누구나말할수업는아름다운얼골이되심니다
▲동경이나대판에서는상류부인들에게이분이만히류행하는중임니다
▲녯날분은연독의무서운것을최근의과학으로잘알게되엿슴니다
▲백색미안수는내무성위생시험소에서도무연백분으로증명되엿슴니다

연분이절대로업는안전한신식백분

發賣元 東京·大阪 桃谷順天館
▲백색미안수는각화장품점에잇소

一 요사이갓치、氣管枝加答兒、喘息、百日咳、肺結核感冒等의呼吸器病에기침과가래의苦痛밧는사람이만케되엿슴니다。

二 此等苦惱는純學理上立脚해서 新使命으로써産出된參天기침藥에 依하야괴롭시안케 救할수가잇슴니다

三 參天기침藥은如何히頑固한기침에도賞用을가지고推獎할수잇는家庭新藥으로서現在醫界의賞用益한鎭咳祛痰新藥산로이드와그集成을同一히한것이올시다

四 산로이드는我社研究部가顧問醫學博士指導下에創見하고諏訪、大野、宵山의三醫學博士를비로소多數臨床醫家實驗推獎을得한것임으로이것과同一集成의參天기침藥은家庭治療藥으로가장進步된것이올시다

五 臨床醫學界에對한權威잇는多數大家의臨床實驗報告書及說明書를無料送呈함니다

特長 參天기침藥은모루히네、고데인等의麻醉劑또는吐根、세네가와갓흔사포닌劑와달나서全혀副作用업시一劑로서能히鎭咳와祛痰의兩目的을達하는것은本劑創見의要點이올시다。

삼텬기침약 參天セキ藥

十回分五十錢、廿四回分壹圓、前金送料各二錢
各地의信用잇는藥店에잇소

參天기침藥의藥效에對하야 醫學博士小田俊三先生近著東京博文館發行『呼吸器病의豫防과手當』이란冊中에效果優越하고第一安全한鎭咳祛痰藥이라고賞讚되여잇슴니다

大阪市北濱二丁目 參天堂株式會社 振替貯金大阪三六六番